

통일부 장관, 美 한반도 전문가들과 한반도 정세 및 대북정책 관련 간담회 개최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5월 21일(목) 오후, 미국 내 주요 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한 문제, 한반도 평화공존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참석자 : 조셉 윤(前 주한 미국대사대리), 패트릭 크로닌(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 앤드류 여(브루킹스연구소 아시아정책연구센터 SK-코리아재단 석좌), 오미연(RAND 연구소 한국석좌), 마크 코자드(RAND 연구소 선임 안보정책 연구원), 하이노 클링크(RAND 연구소 연구원)

□ 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며,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진전 노력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 정 장관은 지난 70여 년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국은 성공적 국가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긴밀한 한미관계를 기반으로 한반도 분단과 북한 핵문제라는 도전을 극복하게 된다면 한국은 더욱 세계적인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또한, 미국과 중국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G2라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G2는 한국과 미국이며, 한국과 미국이 같은 목표와 해법을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한다면 분단과 북핵 문제 역시 어렵지만 해결 가능한 과제라는 긍정적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참석자들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핵 문제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함께,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 및 현실적 북핵 해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또한 최근 미국 내 정책 커뮤니티에서도 변화된 안보 환경 속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접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 통일부는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면담 사진

담당 부서	통일협력국 국제협력기획과	책임자	과 장	서영신 (02-2100-2370)
		담당자	서기관	최진용 (02-2100-2371)



